

##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홍 대 식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612명의 남녀 대학생들(데이트관계를 가졌던 237명을 포함함)에게 데이트관계의 형성(데이트 상대자수)과 데이트관계의 발전(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한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과거의 데이트 상대자수와 관련된 변인들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r=-.35$ ),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의 숙지도( $r=.34$ ),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r=.31$ ), 이성교제의 상황유리성( $r=.24$ ), 이성애에 대한 사회성( $r=.20$ ) 등이었으며, 사회경제수준, 일반적 사회성, 자기존중, 감정이입 및 개인적 자원은 관련이 없었다. 데이트 상대자수의 결정요인들( $R^2$ )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13), 연령(.10),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05),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의 숙지도(.02), 과거 이성관계의 만족도(.03), 신장(.01) 및 이성교제의 일반능력(.01)의 순이었다.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관련된 변인들은 관계의 중요성( $r=.71 \sim .76$ ), 조화성( $r=.66 \sim .74$ ) 및 비교수준( $r=.69 \sim .71$ )이었으며, 사회교환변인들을 포함한 많은 변인들이 또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개입의 결정요인들( $R^2$ )은 만족(.79), 애정(.05), 과잉이익(.02), 파트너의 신체매력(.01)이었다. 만족의 결정요인들( $R^2$ )은 조화성(.72), 관계의 중요성(.10), 파트너의 신체매력(.06), 규범적 지지(.02) 및 비교수준(.02)이었다. 애정의 결정요인들( $R^2$ )은 개입(.63),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09), 비교수준(.05), 투자(.02), 자기개방(.02) 등이었다. 개입, 만족 및 애정의 개념들과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의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인간 생애의 과정에서 결혼 전에 이성을 만나서 사귀거나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에 이르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매우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성간의 교제는 "데이트"라는 용어로 우리 문화에서도 이제 널리 쓰이고 있지만, 데이트의 행위나 제도는 이성관계의 당사자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8.15 해방 이후와 6.25

동란을 거쳐 서구 문화가 물밀듯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의 일부로서 이러한 제도가 우리의 생활문화의 일부를 차지하고 이제는 널리 보편화된 관행으로 된 것 같다.

결혼전의 이성간의 교제는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사회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혼전의 이성관계는 관여된 사람들의 행복이나 만족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혼생활의 적응, 유지 및 행복(예;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 1976; Freedman, 1978의 전국적 조사들에 대해 중요하다. 또한 관계의 혼란들이나 부족한 사교관계들과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들 사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특히 도움을 준 박근석 선생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예; Bloom, Asher 및 White, 1978; Thoits, 1983). 따라서, 사회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한 분야는 남녀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들의 특징들과 해체요인들이다.

본 연구는 혼전 남녀의 데이트관계의 형성, 발전 및 유지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의문들 중에서 데이트관계의 시초형성은 많은 연구들의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데이트관계의 발전과 유지에 관한 연구들이 다소 많이 제시되어 왔으며, 연구들은 데이트관계의 주요 현상들과 이들 현상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 변인들을 주로 취급했다. 이하에서 우리는 데이트관계의 시초형성과 발전 및 유지에 관련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적으로 개관한다.

### 데이트관계의 형성요인들

일반적인 대인매력의 요인들을 취급하는 많은 연구들은 물리적 근접성(Festinger, Schachter 및 Back, 1950; Lawton, 1975; Nahemow와 Lawton, 1975; Newcomb, 1961; Parker, 1964; Segal, 1974), 친숙성이나 단순 접촉(Brockner와 Swap, 1976; Moreland와 Zajonc, 1982; Zajonc, 1968), 신체 매력(Cash와 Killcullen, 1985; Folkes, 1982; Hatfield와 Sprecher, 1986), 유사성(Byrne와 Nelson, 1965; Newcomb, 1961), 상호의 긍정적 평가(Aronson과 Worchel, 1966; Backman과 Secord, 1959; Jones와 Panitch, 1971; Pepitone와 Wilpinski, 1960) 및 자기개방(Altman과 Taylor, 1973; Archer, Berg 및 Runge, 1980)의 요인들이 대인매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 매력요인들이 이성에 대한 매력과 이성관계의 형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이성관계의 형성이나 경험정도와 이들 변인의 관련성을 직접 취급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물리적 근접성이나 친숙성의 요인과 관련하여, 직장내의 사회적 - 성적 행동의 기본적 결정요인으로서

남녀비율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며(Fairhurst와 Snarely, 1983; Kanter, 1977), 직장내의 이성의 숫자가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사회적 - 성적 행동과 정적으로 관련있었다(Gutek, 1985). 또한 직장내의 연애에 관한 연구(Anderson과 Hunsaker, 1985)는 94%의 연애상대자들이 동일한 빌딩에서 근무했고 64%의 연애상대자들이 한 사무실이나 이웃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나타냈다.

유사성의 요인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의한 남녀 덴스파티의 실험상황에서, 신체매력, 성격, 지능 및 사교기술의 유사성이나 결맞음이 남녀간의 호감에 관련없었고 신체매력만이 데이트상대에 대한 호감과 파트너에 대한 남자들의 접근 시도의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 그러나, 상대방의 수용가능성이 불확실했던 연구들은 유사성이나 결맞음의 요인의 영향을 지지했다(Berscheid, Dion, Walster 및 Walster, 1971; Berscheid와 Walster, 1974의 평론).

또한 혼전 파트너들과 기혼부부들 간의 유사성이 여러 특징들 즉, 가정배경, 종교, 인종과 같은 인구학적 특징들(Hendrick, 1981; Hill, Rubin 및 Peplau, 1976), 성격(Antill, 1983; Skolnick, 1981), 태도들(Burgess와 Wallin, 1953), 가치들(Schillenberg, 1960) 및 신체매력(Price와 Vandenberg, 1979)에서 있었다. 특히 신체매력의 유사성이 데이트 남녀들(Critelli와 Waid, 1980; Silverman, 1971)과 아울러 약혼남녀들(Murstein, 1972; White, 1980)에서 있었다.

신체매력의 중요성은 앞에서 지적된 Walster, Abrahams 및 Rottman(1966)의 실험연구에서 지지받았으며, 매력있는 남녀들이 이성친구가 더 많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White, 1980).

데이트관계의 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과 거부의 예상이 데이트상대의 결정에 작용된다는 증거가 있다. 즉, 가능한 연애상대들 중에서 자기와 상대하는 것을 환영할 것으로 확신했던 남자들이 확신하지 않았던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매력있는 여자를 택했다(Huston, 1973; Shanteau와 Nagy, 1976).

성격변인들과 관련하여, Dion과 Dion(1985, 1988)

은 통제소재(Rotter, 1966)의 차원 상에서 내부통제인들은 연애에 대해 조심스럽고 이성적 접근을 취하는 반면에, 외부통제인들은 연애에 대해 이상주의적 관점을 갖고 연애적 매력을 신비스럽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면서 쉽게 연애적 애착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했다. 또한 이들은 방어성(Crowne과 Marlowe, 1964)이 자기존중과 애정경험을 매개시켜서, 방어성이 낮고 자기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애정과 짝사랑의 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트와 밀접하게 연관된 활동은 성활동이며,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혼전 성행동의 요인들은 많지만(Miller와 Moore, 1990),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태도가 가장 좋은 예언요인들이었다. 이른 연령에 성관계를 가진 10대들은 독립성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두고 학업성적을 덜 걱정하고 덜 종교적이고 가족들보다 친구들의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Jessor, Costa 및 Donovan, 1983). 또한 혼전 성활동은 데이트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파트너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나타내는 10대들에서 더 일어나기 쉽다(Newcomb, Huba 및 Bentler, 1986). 10대들의 성활동은 또한 성별과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Brooks-Gunn과 Furstenberg, 1989), 사회규범과 문화 요인의 작용을 시사해 준다.

## 데이트관계의 발전과 유지의 요인들

### 데이트관계의 유지와 파탄의 요인들

지금까지의 이 분야의 연구들은 데이트관계가 유지되거나 파탄되는 데에 관련된 변인들에 관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개의 요인들이 이것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개입(commitment) : 개입(또는 몰입)은 관계유지의 의도라고 정의되는데, 연구들은 이 변인이 관계의 유지와 파탄에 관련되어 있다는(즉, 개입이 클 경우에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왔다(Felmlee, Sprecher 및 Bassin, 1990; Hendrick과 Hendrick, 1988). 또한 관계유지자들은 시간경과에 따라 개입이 증가되었다

(Rusbult, 1983).

개입과 직접 연관된 관여(involve)의 수준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있었으며(Lloyd, Cate 및 Henton, 1984), 개입의 한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는 관계의 기간과 단독 데이트의 수준이 또한 관련있었다(Simpson, 1987).

따라서, 관계 개입은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관계의 유지-파탄을 결정짓거나 관련된 변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만족 : 만족은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라고 정의 되는데, 이 변인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되어 있는지가 취급되었다. 몇 개의 연구들은 만족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으며(Hendrick, 1988; Hendrick과 Hendrick, 1988; Simpson, 1987), 유지되는 관계들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만족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였다(Rusbult, 1983).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만족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었다(Berg와 McQuinn, 1986; Lloyd, Cate 및 Henton, 1984).

따라서, 만족은 위에서 인용된 4개의 연구들에서 관계의 유지-파탄에 영향주거나 상관된 요인이었지만, 2개의 연구들에서 영향이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또는 사랑) : 애정은 파트너에 대한 긍정적 감정으로서, 만족의 한 요인이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것은 관계 파탄자들보다 유지자들에서 더 컸다(Berg와 McQuinn, 1986; Burgess와 Wallin, 1953). 이와 비슷하게, Hendrick과 Hendrick(1988)은 관계유지자들이 파탄자들보다 열정적 사랑스타일(즉, Eros 요인)이 더 높았고 게임식의 사랑스타일(즉, Ludus 요인)이 더 낮았다는 것을 보였다.

애정의 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친밀성(intimacy)이 관계유지자들에서 더 컸으며(Hill, Rubin 및 Peplau, 1976; Simpson, 1987), 애정이 관계의 발전단계 동안에 증가되었지만 해체단계 동안에는 감소되었다(Lloyd와 Cate, 1985).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애정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영향을 주었거나 상관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

왔다.

유사성 : 대부분의 연구들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파트너들의 특징들의 유사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관계유지자들은 파탄자들보다 인구학적 변인들(연령과 교육계획), 지능과 신체매력에서 더 유사했으며(Hill, Rubin 및 Peplau, 1976), 문화차이들이 더 작았으며(Burgess와 Wallin, 1953), 관계에 관련된 속성들(사랑태도들, 자기개방, 관계 만족. Hendrick과 Hendrick, 1988)에서 그리고 관여수준(Hill, Rubin 및 Peplau, 1976)에서 더 유사했다. 또한, 관계유지자들은 활동선호의 유사성이 더 컸고 공동활동에 대한 참가가 더 컸다(Surra와 Longstreth, 1990).

또한 관계유지자들은 유사성과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성격상의 문제들이 더 적었으며(Burgess와 Wallin, 1953), 연애패트너들이 신체매력의 자기평정치에서 더 유사했다(Feingold, 1988).

갈등 : 관계의 유지-파탄에 대해 갈등이 관련없었거나(Berg와 McQuinn, 1986), 여자들에서만 관련있었다(Surra와 Longstreth, 1990).

사회적 또는 규범적 지지 : 사회적 지지는 관계에 대한 가족(또는 부모)과 친구들의 지지를 일컫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요인이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Burgess와 Wallin, 1953; Lewis, 1973; Johnson과 Miraldo, 1984; Parks와 Adelman, 1983; Parks, Stan 및 Eggert, 1983).

사회적 지지의 지각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접촉, 매력 및 의사소통이 또한 관계의 유지-파탄과 관련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교환변인들보다 더 작은 변량을 설명했다(Johnson과 Miraldo, 1984).

사회교환변인들 : 사회적 교환이론들에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된 변인들은 투자, 대안관계의 질, 보수, 부담(또는 비용), 비교수준(CL) 및 형평성이었다. 관계유지자들은 파탄자들보다 관계에 대한 투자가 더 컸거나(Hendrick과 Hendrick, 1988; 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더 증가되었다(Rusbult, 1983). 또한 관계유지자들은 파탄자들보다 대안관계의 질이 더 낮았거나(Berg와 McQuinn, 1986;

Lloyd, Cate 및 Henton, 1984; Simpson, 1987) 더 감소되었다(Rusbult, 1983).

관계유지자들은 파탄자들보다 보수 수준이 더 높았거나(Lloyd, Cate 및 Henton, 1984) 더 증가되었다(Rusbult, 1983). 그러나 보수의 효과는 관계의 기간에 따라 효과가 일정치 않았다(Berg와 McQuinn, 1986). 일반적으로, 부담은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없었다(예; Rusbult, 1983).

비교수준은 관계의 유지-파탄에 관련이 있었지만, 형평성은 관련이 없었다(Berg와 McQuinn, 1986).

성격요인들 : 관계유지자들이 파탄자들보다 자기개방(Berg와 McQuinn 1986; Hendrick과 Hendrick, 1988)과 자기존중(Hendrick과 Hendrick, 1988)이 더 높았다.

성관계의 유무와 성태도 : 관계의 유지-파탄과 성관계의 유무는 관련이 없었거나(Hill, Rubin 및 Peplau, 1976), 관련이 있었다(Simpson, 1987). 또한 관계유지자들이 더 보수적(제약적) 성태도를 보였다(Simpson, 1987).

## 개입의 요인들

개입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또는 의도)로서, 일반적으로 관계의 유지-파탄의 심리적 결정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연구들은 몇 개의 변인들이 이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만족 : 만족은 개입의 정도와 직접 관련있었으며(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Sprecher, 1988), 개입의 한 요인(즉, 헌신)과 또한 관련있었다(Stanley와 Markman, 1992).

애정(또는 사랑) : 애정은 각각 개입의 한 지표인 관계수준의 증가(Braiker와 Kelley, 1979)와 친밀성의 증가(Stanley와 Markman, 1992), 그리고 관계의 개인적 중심성(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Lin과 Rusbult, 1995)과 관련있었다.

갈등 : 갈등은 개입의 한 지표인 관계의 밀접성과 관련없었지만(Stets, 1993), 개입의 다른 지표인 관계수준의 증가는 갈등과 직접 관련된 양가감정의 감소와 관련있었다. 따라서, 갈등과 개입간의 관계는 일

정치 않았다.

사회적(또는 규범적) 지지 : 개입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는 관련이 있거나(Sprecher, 1988)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in과 Rusbult, 1995).

사회교환변인들 : 개입은 투자와 관련있거나(Lin과 Rusbult, 1995; Lund, 1985; 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관련없었다(Sprecher, 1988). 대안관계의 질은 일정하게 개입과 관련있었으며(Lin과 Rusbult, 1995; 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Sprecher, 1988), 만족과 더불어 개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Sprecher, 1988).

보수는 개입과 관련있었지만(Cate, Lloyd 및 Long, 1988; Lund, 1985), 부담은 개입과 관련없었거나(Rusbult, 1983) 약하게만 관련있었다(Rusbult, 1980).

비교수준은 개입과 관련이 없었으며, 형평성은 관련있었다(Sprecher, 1988).

성격요인들 : 개입이 높은 것은 자기개방(Stanley와 Markman, 1992)과 관련있었으며, 개입과 사회적 자기존중의 낮음이 관련있었거나(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관련없었다(Lin과 Rusbult, 1995). 개입은 또한 남성성의 낮음과 관련있었거나(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관련없었으며(Lin과 Rusbult, 1995), 개입과 파트너의 조망을 취하기는 관련이 있었거나(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관련이 없었다(Lin과 Rusbult, 1995). 그 밖에, 일반적 자기존중, 감정이입적 관심 등과 개입은 관련없었다(Lin과 Rusbult, 1995; 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따라서 개입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관련성은 일정치 못했거나 미약했다.

## 만족의 요인들

연구들은 몇 개의 요인들이 관계에 대한 만족과 관련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개입 : 연구들은 만족과 개입이 일정하게 관련있다는 것을 나타냈다(Hendrick, 1988; Hendrick과 Hendrick, 1988; Lund, 1985).

애정(또는 사랑) : 만족과 애정이 관련있었으며(Hendrick, 1988), 사랑스타일들 중의 열정에와 이타애와는 정적 관계가 있었고 게임애와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Hendrick과 Hendrick, 1988).

유사성 : 활동선호의 유사성과 공동활동참가가 관계의 유지-파탄과 마찬가지로 만족과 관련있었다(Surra와 Longstreth, 1990).

갈등 : 만족의 높음이 갈등의 적음과 관련있었다(Surra와 Longstreth, 1990).

사회교환변인들 : 만족과 투자가 관련있었으며(Hendrick, 1988, Hendrick과 Hendrick, 1988; Rusbult, 1983), 만족과 대안관계의 질은 관련이 유의한 연구들이 없었다. 만족과 보수가 관련있었지만(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및 Lloyd, 1982; Cate, Lloyd 및 Long, 1988; Michaels, Edwards 및 Acock, 1984), 부담은 관련이 없었다(Rusbult, 1983). 만족과 비교수준 간의 관련이 유의한 연구는 없었으며, 형평성은 만족과 매우 작은 관련성만이 있었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및 Lloyd, 1982; Cate, Lloyd 및 Long, 1988; Michaels 등, 1984).

성격요인들 : 만족과 자기개방이 관련있었으며(Hendrick, 1981; Hendrick, 1988; Hendrick과 Hendrick, 1988), 자기존중이나(Hendrick과 Hendrick, 1988) 일반적 및 사회적 자기존중과 관련있었다(Lin과 Rusbult, 1995).

성태도 : 만족과 성적 태도(즉, 성적 수단성이 낮음)와 관련있었다(Hendrick, 1988; Hendrick과 Hendrick, 1988).

## 기타요인들

데이트관계의 성질들로서 유지-파탄, 개입 및 만족 이외의 소수의 성질들이 연구되었다. 사랑과 투자와 보수가 상관있었으며(Lund, 1985), 갈등과 선호하는 활동들의 비유사성이 상관있었다(Surra와 Longstreth, 1990). 마지막으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행동 중의 건설적 조정노력과 만족, 개입 및 투자 등이 상관있었다(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데이트관계의 주요 관심 변인들, 즉 관계의 유지-파탄, 개입, 만족 등과 관련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상의 검토를 요약하면, 몇 개의 변인들은 일정하게 관련있었지만, 다른 변인들은 일정치 못한 관련이 있었다. 개입변인은 관계의 유지-파탄과 만족과 일관되게 관련있었고, 애정변인은 관계의 유지-파탄, 개입 및 만족과 일관되게 관련있었고, 유사성 변인은 관계의 유지-파탄과 만족과 일관되게 관련있었고, 사회적 지지의 변인은 개입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갈등은 관계의 유지-파탄과 관련없었으나 만족과 관련있었다.

한편, 사회교환변인들은 전반적으로 관계의 유지-파탄, 개입 및 만족과 일관성있는 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이들 변인들 중에서, 투자는 관계의 유지-파탄, 개입(1개의 연구를 제외하고서) 및 만족과 관련이 있었고, 보수는 관계의 유지-파탄(1개의 연구를 제외하고서), 개입 및 만족과 관련있었으며, 대안관계의 질은 만족을 제외하고서, 관계의 유지-파탄과 개입과 관련있었다. 부담은 관계의 유지-파탄과 관련없었고 개입과 만족과 약하게 관련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격변인들 중에서, 자기개방의 변인은 관계의 유지-파탄, 개입 및 만족과 일정하게 관련있었고, 자기존중의 변인은 관계의 유지-파탄과 만족과 일정하게 관련있었다. 또한 심리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개입과 만족과 일정하게 관련있었고, 사회적 자기존중은 개입과 일관되지 못하게 관련있었고, 파트너의 조망을 취하기는 개입과 일관되지 못한 관련이 있었지만 만족과 관련있었다.

## 본 연구의 목적

위에서 개요된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즉, 유지-파탄, 개입, 만족 등)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 분야의 연구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시사된다. 첫째로, 이 분야의 연구들은 이미 형성된 데이트관계의 특징들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시초의 데이트관계의 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데이트관계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시초의 형성에 관

련된 변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이 기울여져야만 될 것이다. 둘째로, 많은 연구들이 기존의 이론(특히, 사회적 교환과 투자이론들)에 관련된 소수의 변인들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이론적 관심 밖의 중요할 수 있는 많은 변인들(예컨대, 의사소통능력, 성격, 데이트활동들)이 등한시되어 왔다. 그 결과로, 연구들은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들은 각각 관심을 두고 있는 소수의 변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의 연구들이 주로 서구 특히,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데이트관계에 이들 연구결과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관계의 시초 형성에 관련된 변인들을 취급하고, 데이트관계의 발전에 관련된 이전 연구들에서 취급된 변인들과 아울러 몇 개의 새로운 변인들을 동시에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변인들의 상대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데이트관계의 형성(즉, 대학생들이 이전에 상대했던 데이트상대의 숫자)에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 아울러 데이트관계의 발전(특히, 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의 변인들과 몇 가지 새로운 변인들을 검토했으며, 이하에서 제시된 여러 변인들이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있을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관련된 변인들

연령 : 일반적으로 데이트관계는 어린 연령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미국의 청소년들에서 남자의 약 1/3과 여자의 약 1/4이 15세 경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들에서 시사되는 바와 같이, Miller와 Moore, 1990),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생의 지위에 이를 때에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미혼인 10대들의 성교 백분율이 연령이 증가될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이므로(Sorenstein, Pleck 및 Ku, 1989), 데이트관계의 형성 경험도 또한 연령이 증가될수록

많아질 것이다.

신체매력 : 신체매력과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이성 친구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들(Cash와 Killcullen, 1985; Green, Buchanan 및 Heuer, 1984; Hatfield와 Sprecher, 1986; Reis, Nezik 및 Wheeler, 1980; 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 White, 1980)이 있다. 신체매력과 관련있는 신장과 관련해서, 신장이 큰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선호받으며(Lynn과 Shurgot, 1984) 신장이 작은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선호받는다(Gillis와 Avis, 1980)는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heppard와 Strathman(1989)의 연구와 같이 신장이 일반적으로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정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이성교제에 대한 가치관과 개인적 자원(시간, 금전 등)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고 따라서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데이트에 대한 동기 : 데이트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동기가 높을수록 데이트관계의 경험이 많을 것으로 가정된다. 교우관계의 형성에서 교우관계에 대한 동기가 관련있다는 연구(McAdams와 Losoff, 1984)와 혼전 성활동이 데이트관계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파트너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나타내는 10 대들에서 일어나기 쉽다는 연구가 있다(Newcomb, Huba 및 Bentler, 1986).

데이트에 대한 태도 : 태도가 행동에 관련있다는 사회심리학의 이론들(예: Ajzen과 Fishbein, 1980)과 강한 태도들이 행동과 관련있다는 연구들(Kelley와 Mirer, 1974; Norman, 1975; Miller와 Tesser, 1986)에 따라 데이트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데이트관계의 형성이나 경험이 많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데이트의 능력과 기술 : 교우관계의 형성에 사교기술이 관련있으며(Cook, 1977) 학교에서 인기없는 아동들이 비언어적 신호의 해석이 불량하다(Furman, 1984). 사교기술의 한 측면인 자기개방이 관계의 진전에 관련있다는 이론(Altman과 Taylor, 1973)과 연구들(예: Archer, Berg 및 Runge, 1980)이 있다.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 : 이성교제의 경험은 일

종의 보수이므로, 과거의 이성교제가 만족스러웠을수록 데이트관계를 맺었던 상대수가 많을 것이다.

첫 데이트의 연령 : 이성교제의 경험이 연령에 따라 추가적인 것이므로, 데이트경험이 이룰수록 관계를 맺었던 상대수가 많아질 것이다.

성격 : 성격의 몇 가지 측면들이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① 사회성 : 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성(Buss, 1995)은 사회적 참가나 대화빈도와 연관되어 있고(Gifford와 Gallagher, 1985), 따라서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사회성의 부족에 기인될 수 있는 고독한 사람들이 더 적은 사교활동을 행하며 데이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Russell 등, 1980).

② 자기존중 : 자기존중과 인기가 상관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Lorr와 Wunderlich, 1986), 관계의 유지-파탄과 자기존중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고(Hendrick과 Hendrick, 1988), 관계의 만족과 일반적 및 사회적 자기존중이 관련있었다(Lin과 Rusbult, 1995).

③ 감정이입(empathy) : 감정이입은 관계개입과 관련있었고(Lin과 Rusbult, 1995), 관계문제에 대한 건설적 조정행동과 관련있었고(Rusbult, Whitney, Solvik 및 Lipkus, 1991), 따라서 이것이 관계형성에도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④ 타인의 조망을 취함(perspective-taking) : 타인의 조망을 취함과 관계의 친밀성이나 가까움이 관련있었고(Lin과 Rusbult, 1995; Stets, 1993), 관계개입과 관련있었거나 관련없었다(Lin과 Rusbult, 1995)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이성교제의 상황과 개인적 자원 : 앞 절에서 지적된 근접성과 대인매력이나 이성관계간의 관계에 관한 증거들(예; Anderson과 Hunsaker, 1985)에 따라 근접성의 지표들일 수 있는 사귄 만한 이성들이 주위에 존재하는 정도와 이성과 직접 만날 기회의 정도가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이성교제에는 개인의 자원(시간적, 정신적 및 금전적)이 필요하고 주위 인물들(선배, 친구 및 친척)의 소개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들 변인이 데이트관계의 형성

에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 데이트관계의 발전(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련된 변인들

앞에서 개요된 바와 같이 개입, 만족 및 애정간에 관련이 있을 것이 가정되었으며, 이들 변인과 다음의 변인들이 또한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사회교환변인들 : 데이트관계의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특히 관심있는 변인들은 사회교환변인들이다. 상호의존이론(Kelley와 Thibaut, 1978; Thibaut과 Kelley, 1959)과 이 이론을 발전시킨 투자이론(Rusbult, 1980, 1983)에서 취급된 변인들(보수, 부담, 비교수준, 대안관계 비교수준, 투자 및 만족)이 관계발전에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형평이론(Berscheid와 Walster, 1978; Hatfield와 Traupmann, 1981)에서 취급된 형평성(과잉이익과 과소이익을 포함)이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관계밀접성의 다른 지표들 : 데이트관계의 개입과 만족과 아울러 애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관계의 밀접성의 여러 측면들이 있으며 이것들이 위의 3개의 변인들과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①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 파트너들 간의 관계의 전반적 가까움으로서 관계유지-파탄(Hill, Rubin 및 Peplau, 1976; Simpson, 1987)과 애정(Stanley와 Markman, 1992)과 관련있었다.

② 파트너와의 결혼가능성의 지각 : 이 요인이 관계의 안정성의 한 요인이었다(Hill, Rubin 및 Peplau, 1976).

③ 신체접촉 수준 : 관계밀접성의 신체접촉의 측면이다.

④ 성적 친밀성 : 이 요인이 관계안정성의 한 요인이었다(Simpson, 1987).

⑤ 관계의 중심성 : 데이트관계가 개인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정도를 일컬으며, 이 변인이 개입과 애정과 관련있었다(Lin과 Rusbult, 1995; Rusbult, Gregory, Whitney, Slovik 및 Lipkus, 1991).

⑥ 데이트활동의 적극성 : 데이트활동의 적극성은 데

이트관계의 기간, 주당 데이트 일수, 주당 데이트시간 등의 지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 Berscheid, Snyder 및 Omoto(.989)는 지난주의 데이트시간과 활동들로 관계밀접성의 지수를 얻었으며, 데이트의 기간이 데이트 관계의 유지-파탄의 한 요인이었다(Felmlee, Sprecher 및 Bassin, 1990).

욕구충족 : 관계에 대한 만족과 구체적 욕구들의 충족이 관련있었으며(Drigotas와 Rusbult, 1992), 사랑에 관한 자기설명들에서 욕구충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Aron, Dutton, Aron 및 Iverson, 1989; Shaver, Schwartz, Kirson 및 O'Connor, 1987).

의사소통 : 의사소통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 2가지 변인이 취급되었다.

① 파트너와의 대화원활도 : 혼전의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파트너들 간의 대화의 긍정성이 결혼만족도와 연관있었다(Markman, 1979, 1981).

② 자기개방 능력 : 자기개방은 관계의 유지-파탄(Berg와 McQuinn, 1986; Hendrick과 Hendrick, 1988), 개입(Stanley와 Markman, 1992) 및 만족(Hendrick, 1981, 1988; Hendrick과 Hendrick, 1988)과 관련있었다.

상호작용의 문제와 관계유지노력 :

① 관계의 문제정도와 갈등 : 갈등이 관계의 유지-파탄(Berg와 McQuinn, 1986; Surra와 Lonstreth, 1990)과 개입(Stets, 1993)과 관련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만족과 부정 관련이 있었다(Surra와 Langstreth, 1990). 또한 혼전관계의 갈등과 부정적 행동이 2년 후의 결혼생활의 갈등과 부정적 행동과 관련있었다(Kelly, Huston 및 Cate, 1985).

② 양가감정 : 관계발전 동안에 양가감정이 감소되었다(Lloyd와 Cate, 1985).

③ 관계유지 노력 : 이것은 관계의 안정성(Berg와 McQuinn, 1986; Braiker와 Kelley, 1979)의 한 요인이었으며, 개입, 만족 및 투자와 상관있었다(Rusbult, Gregory, Whitney, Solvik 및 Lipkus, 1991).

조화성과 유사성 :

① 관계의 조화성(compatibility) : 관계의 조화성은 데이트관계의 관건요인으로서 여러 이론들의 초점이



되어 왔다. 상보성을 통한 조화성 모형(Winch, 1955a, 1955b; Winch, Ktsanes 및 Ktsanes, 1954), 유사성모형들 및 순서적 필터링모형들(Kerchhoff와 Davis, 1962; Lewis, 1973; Murstein, 1976)은 여러 특성들, 가치들 및 역할들의 조화성이 관계의 발전과 붕괴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유사성 : 앞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유사성은 관계의 개입과 만족과 관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성은 관계의 유지-파탄(예; Hill, Ribin 및 Peplau, 1976)과 관련있었으며, 이성의 친구관계들에서도 여러 인구학적 특성들의 유사성이 있었다(예; Badchuk, 1965).

파트너의 신체매력 : 신체매력은 일반적 매력요인으로서(예; Folkes, 1982)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호감요인으로서(예; 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 작용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회적 지지 : 관계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찬성이나 반대인 사회적 또는 규범적 지지가 관계의 유지-파탄(Burgess와 Wallin, 1953; Feilmee, Sprecher 및 Bassin, 1990; Lewis, 1973; Johnson과 Miraldo, 1984; Parks와 Adelman, 1983; Parks, Stan 및 Eggert, 1983)과 개입(Sprecher, 1988)과 관련있었다.

성격 :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관한 가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존중, 감정이입 및 파트너의 조망을 취합이 관계의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 방 법

조사대상자 성신여자대학교(169명), 성균관대학교(336명) 및 전북대학교(107명)에서 대부분이 심리학 개론 과목을 수강하는 총 612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의 질문지에 응답했다. 이 중에서 남자는 263명(43%)이었고 여자는 348명(57%)이었으며(1명은 무응답이었음), 학년별로 1학년이 143명(25%), 2학년이 267명(46%), 3학년이 96명(16%), 그리고 4학년이 78명(13%)이었다(무응답자가 27명임). 또한 전체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21.3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현재 데이트 중인 학생들이 237명(39%)이었고 평균 데이트 기간은 15.2월이었다. 현재 데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372명(61%)이었다.

도구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질문지가 작성되었다.

###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측정

데이트관계의 형성의 지표로서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의 이성과 데이트관계(즉, 한 남녀 쌍으로서 상대하는 것)를 가졌습니까?”라는 질문이 제시되었고, 반응은 전혀 없다에서 6명 이상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정된 관련변인들은 다음의 질문들로 측정되었으며, 대부분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연령 : 만 연령이 질문되었다.

신체매력도 : “당신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이성에 대한 매력도 : “이성에 대한 당신의 매력은 얼마나 많습니까?”

신장 : cm로 응답되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 부친의 학력(“당신의 아버지의 학력은?”)은 초등학교 졸업이나 그 이하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에 이르는 6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집안의 경제수준(“당신의 집안의 경제수준은?”)은 하류에서 상류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데이트에 대한 동기 : “당신은 평소에 이성과의 데이트관계를 갖는 것을 얼마나 원했습니까?”와 “당신은 평소에 이성과의 데이트관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데이트에 대한 태도 : “당신은 이성과의 데이트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나쁘다 - 좋다, 중요치 않다 - 중요하다, 방해된다 - 도움이 된다 및 불쾌하다 - 유쾌하다의 어의세분(SD)척도가 사용되었다.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 “당신이 처음 데이트할 당시의 연령은 몇 세이었습니까?”(만 세)

데이트에 대한 능력과 기술 :

① 이성교제의 일반능력: “이성과 사귀는 당신의 일반능력은 어떻습니까?”(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

②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 숙지도: “이성과 사귀는 당신의 사교기술은 어떻습니까?”(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와 “이성과 사귀는 방법에 대해 당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전혀 모른다 - 매우 잘 안다)

③ 이성교제의 의사전달 능력: “당신은 사귀기 만한 이성이 있을 경우에 자신의 교체할 의사를 얼마나 잘 전달합니까?”(전혀 전달하지 못한다 - 매우 잘 전달한다)

④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당신은 이성의 데이트신청을 받아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와 “당신은 이성이 당신과의 교체의사를 당신에게 표시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전혀 없다 - 매우 많다)

⑤ 이성관계의 편안도: “지금까지 당신은 이성들과 상대한 후에 어느 정도 편안한 느낌을 가졌습니까?”(매우 긴장되었다 - 매우 편안했다)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

“지금까지 당신은 이성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까?”(매우 불만족스러웠다 - 매우 만족스러웠다)

성격:

① 일반적 사회성: Cheek와 Buss(1981)의 사회성 척도 중의 5개 문항들(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② 이성에 대한 사회성: 상기의 Cheek와 Buss(1981)의 사회성척도를 “이성과 상대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중심으로 수정되었다.

③ 동성친구수와 이성친구수: 사회성의 다른 지표들로서 동성친구수는 “당신은 평소에 가깝게 어울려 지내는 동성의 친구를 몇 명이나 갖고 있습니까?”(없다 - 9명 이상의 6점 척도)로서, 이성친구수는 “당신은 평소에 인사정도를 하고 지내는 적절한 연령의 이성이나 이성친구를 몇 명이나 갖고 있습니까?”(없다 - 6명 이상의 7점 척도)로서 측정되었다.

④ 자기존중: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척도 중

의 5개 문항들(예;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⑤ 감정이입(또는 동감이나 동정): Davis(1983)의 정서적 동감척도 중의 7개 문항들(예; “나는 나 자신을 꽤 인정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⑥ 타인의 조망을 취함: Davis(1983)의 타인의 조망을 취함(perspective-taking)척도 중의 7개 문항들(예: “나는 대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기가 쉽다.”)에 의해 측정되었다.

이성교제의 상황과 자원:

① 이성교제의 상황유리성: 주위에 존재하는 이성들과의 접촉기회에 관한 2개의 질문인 “당신의 주위에는 당신과 사귀기 만한 이성이 얼마나 많습니까?”와 “당신은 사귀기 수 있는 이성을 직접 만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전혀 없다-매우 많다)로서 측정되었다.

② 주위 인물의 이성소개 지원: “당신에게 사귀기 만한 이성을 소개해 줄 사람들(예; 선배들, 친구들 및 친척들)은 얼마나 많습니까?”(전혀 없다-매우 많다)

③ 이성교제의 개인적 자원: 시간적, 정신적, 및 금전적이거나 물질적 여유에 관한 3개의 질문(예; “당신은 이성과 사귀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으로 측정되었다.

## 데이트관계의 발전(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련된 변인들의 측정

데이트관계의 발전에 관련된 3개의 측면들이 각각 측정되었다. 관계의 개입(또는 몰입)은 Rusbult(1983)가 사용했던 문항들을 수정한 4개의 문항들(“당신은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당신의 관계가 가까운 장래에 끝날 가능성은 얼마나 높습니까?” 및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애착을 느낍니까?”)에 의해 측정되었다. 만족은 Hendrick(1988)이 사용했던 7개의 문항들 중의 4개(예; “일반적으로 당신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애정(또는 사랑)은 Braiker와 Kelley(1979)의 애정척도에 대한

Felmlee, Sprecher 및 Bassin(1990)의 수정판(10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예; “이 관계에서 당신은 \_\_\_\_\_를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사회교환변인들 : 관계의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 및 투자는 Rusbult, Johnson 및 Morrow(1986)가 사용했던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① 보수 : “당신의 파트너가 소유한 좋은 특성들과 당신의 관계에 관련된 좋은 것들은 보수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당신의 이 관계는 얼마나 많은 보수를 줍니까?”(전혀 없다 - 매우 많다)와 “일반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보수들에 비해서 이 관계에서 얻게 되는 보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매우 적다 - 매우 많다)

② 부담 : “당신의 파트너가 소유한 나쁜 특성들과 당신의 관계에 관련된 나쁜 것들은 부담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당신의 이 관계는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줍니까?”(전혀 없다 - 매우 많다)와 “일반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에서 얻게 되는 부담들에 비해서 이 관계에서 얻게 되는 부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전혀 없다 - 매우 많다)

③ 대안관계의 질 : “일반적으로, 이 관계 이외의 당신의 대안이 되는 관계들(다른 관계 또는 데이트관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이 있습니까?”(전혀 매력없다 - 매우 매력있다), “일반적으로 이 관계에 비해서 당신의 대안이 되는 관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매우 나쁘다 - 매우 좋다) 및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관계 대신에 당신의 대안이 되는 관계들을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매우 불만스럽다 - 매우 만족스럽다)

④ 투자 : “일반적으로, 당신은 이 관계 속에(예컨대, 시간, 금전, 정력, 공동경험들, 정신적 투자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 등의 면에서) 얼마나 많이 투자해 왔습니까?”(거의 없다 - 매우 많다)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은 이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이 투자해 왔습니까?”(거의 없다 - 매우 많다)

⑤ 비교수준 :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의 기대정도, 관계에 대한 이상이 높음 및 관계의 좋은 결과들의 기대정도에 관한 3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당신은 이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기대합니까?”(거의 없다 - 매우 많다), “당신은 이 관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이상적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매우 낮다 - 매우 높다) 및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좋은 결과들을 얼마나 많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거의 없다 - 매우 많다)

⑥ 형평성 : Felmlee, Sprecher 및 Bassin(1990)이 사용했던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당신이 이 데이트관계에서 얻은 것에 비해 투자한 것과 당신의 파트너가 이 관계에서 얻은 것에 비해 투자한 것을 고려한다면,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내가 파트너보다 훨씬 더 많이 얻고 있다 - 동일하게 얻고 있다 - 나의 파트너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얻고 있다)와 “때때로 어떤 관계에서의 교환은 불균형될 수 있으며 한쪽 파트너가 상대방보다 관계에 더 많이 기여합니다. 당신의 관계에서의 교환이 불균형되어 왔고, 한쪽 파트너가 상대방보다 한동안 더 많이 기여한 모든 경우들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불균형되었을 때, 당신들은 둘 중의 어느 쪽이 관계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경향이 있습니까?”(나의 파트너가 더 많이 기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 동일하게 기여한다 - 내가 더 많이 기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형평성의 지수는 Felmlee, Sprecher 및 Bassin(1990)과 같이 형평이탈, 과잉이익 및 과소이익의 3가지 지수로 계산되었다.

관계밀접성의 다른 지표들 :

①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 “전반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가깝습니까?”(매우 멀다 - 매우 가깝다)

② 결혼가능성 :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결혼하게 될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③ 신체접촉 수준 :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사이의 가장 깊은 신체적 접촉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 손목을 잡음 - 포옹 - 포옹과 키스 - 신체부분들의 애무 - 성관계 수준)

④ 성적 친밀성 : “전반적으로, 이 파트너와 성적으로 얼마나 친밀합니까?”(거의 친밀하지 않다 - 매우

친밀하다)

⑤ 관계의 중요성 : “당신의 인생에 대해 의미를 주는 일들 중에서, 당신의 이 파트너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저의 중요치 않다 - 매우 중요하다)

데이트활동의 적극성 :

① 데이트관계의 기간 : “현재의 파트너와 첫 번째 데이트(당신이 한 남녀쌍으로서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것)를 가진 날은 언제입니까?”(년, 월, 일)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일과 조사 당시의 날짜 사이의 기간이 계산되었다.

② 주당 데이트 일수 : “최근에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일주일 중에서 평균 몇 일을 만났습니까?”

③ 주당 데이트 시간 : “최근에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총 몇 시간 동안 함께 지냈습니까?”

욕구충족 :

① 본인의 욕구충족 제공도 : “당신 자신은 이 파트너의 욕구들이나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습니까?”(전혀 충족시키지 않았다 - 매우 잘 충족시켰다)

② 상대방의 욕구충족 제공도 :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의 욕구들이나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습니까?”(전혀 충족시키지 않았다 - 매우 잘 충족시켰다)

의사소통 :

① 파트너와의 대화원활도 : “당신과 이 파트너는 대화를 얼마나 잘 진행합니까?”(전혀 잘 되지 않는다 - 매우 잘 된다)와 “당신은 대개 이 파트너와 서로 대화한 후에 어떤 기분이 됩니까?”(매우 기분 나쁘다 - 매우 기분 좋다)

② 자기개방 : 자기개방은 파트너에 대한 자기개방 정도와 파트너의 자기개방에 대한 본인의 유도능력의 면에서 측정되었다. 각각 “당신은 이 파트너에게 개인적 일들이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잘 털어놓습니까?”(저의 털어놓지 않는다 - 매우 잘 털어놓는다)와 “당신은 이 파트너의 개인적 일들이나 문제들을 털어놓게끔 만드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전혀 없다 - 매우 많다)로 측정되었다.

상호작용의 문제와 관계유지노력 : 관계의 갈등, 양가감정 및 관계유지노력은 Felmllee, Sprecher 및 Bassin(1990)이 사용했던 문항들에 의해 측정되었다.

① 관계의 갈등 :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예; “당신과 \_\_\_\_\_는 서로 얼마나 자주 말다툼을 했습니까?”; 전혀 없다 - 매우 많다).

② 양가감정 : 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예; “당신은 \_\_\_\_\_와 교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거나 걱정했습니까?”).

③ 관계문제의 정도 : “당신과 이 파트너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와 “당신과 이 파트너의 관계상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④ 관계유지의 노력 : 3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예; “당신과 \_\_\_\_\_는 두 사람의 관계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의하고 노력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조화성과 유사성 :

① 조화성 : 관계의 조화성의 직접적 측정이 시도되었다. 즉, “당신과 이 파트너는 한 쌍의 남녀로서 얼마나 잘 조화됩니까(어울립니까)?”, “당신과 이 파트너는 데이트상대로서 얼마나 잘 조화됩니까?” 및 “당신과 이 파트너는 장래의 부부로서 얼마나 잘 조화됩니까?”(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 매우 잘 조화된다)

② 유사성 : “당신과 이 파트너는 다음의 특징들의 면에서 얼마나 유사합니까(비슷합니까)?”라는 질문하에서 성격, 의견들과 가치관들(즉, 사고방식), 교육수준, 지적 능력, 신체적 매력(즉, 잘생김의 정도), 습관들이나 행동스타일, 집안의 사회경제적 수준 및 취미나 여가활동들의 7개 영역에 대한 유사성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예; “성격 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합니까?”; 매우 비유사하다 - 매우 유사하다).

파트너의 신체매력 : “이 파트너는 신체적으로 얼마나 매력있다고 생각합니까?”(저의 매력이 없다 - 매우 매력있다)

사회적 지지 : “당신의 친구들은 이 관계를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대합니까?”와 “이 파트너의 가족들은

이 관계를 얼마나 찬성하거나 반대합니까?”

성격: 앞의 데이트관계의 형성부분에서 제시된 척도들이 데이트관계의 개입과 만족과 아울러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한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1997년 6월말 경에 대학생들의 강의시간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 결 과

###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

과거의 데이트관계의 형성의 정도는 현재까지의 데이트 상대자의 숫자로 지수를 삼았으며, 응답자들(N=611) 중에서 전혀 데이트상대가 없었다가 22%, 1명이 17%, 2명이 20%, 3명이 18%, 4명이 8%, 5명이 4% 및 6명 이상이 11%이었다. 데이트 상대자수와 관련있을 것으로 가정된 변인들과의 상관계수가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데이트 상대자수와 연령간의 상관은 매우 낮은 유의한 상관( $r=.12, p<.05$ )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 표본에서 연령은 데이트 상대자와 높은 관련이 없었다.

신체조건, 즉 신체매력( $r=.14$ )과 이성에 대한 매력도( $r=.15$ )는 데이트 상대자수와 매우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각각  $p<.001$ ), 신체매력이 데이트관계의 형성에서 중요하다는 이전 연구들(예; 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과 일치한다. 부가적으로, 신장 또한 데이트 상대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15, p<.001$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삼았던 부친의 학력( $r=.07$ )과 가정 경제수준( $r=.00$ )은 모두 데이트 상대자수와 상관이 유의치 않았다.

데이트에 대한 동기( $r=.10$ )와 태도( $r=.10$ )는 데이트 상대자수와 매우 낮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각각  $p<.05$ ). 이러한 결과는 혼전 성관계가 파트너에 대한 강한 욕망과 관련있다는 Newcomb, Huba 및 Bentler (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그러나, 데이트에 대한 동기와 태도와 데이트상대자수의 상관계수가 매

표 1. 과거의 데이트 상대자수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의의도

변 인 들	상관계수	변 인 들	상관계수
연령	.12*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35***
신체매력	.14**	성격	
이성에 대한 매력도	.15**	사회성	
신장	.15**	일반적 사회성	.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성에 대한 사회성	.20***
부친의 학력	.07	동성 친구수	.06
가정 경제수준	.00	이성 친구수	.17***
데이트에 대한 동기	.11*	자기존중	.08
데이트의 대한 태도	.10*	감정이입	.07
데이트의 능력과 기술		타인의 조망을 취함	.12*
이성교제의 일반능력	.18***	이성교제의 상황과 자원	
이성관계의 사교기술 및 방법의 숙지도	.34***	이성교제의 상황유리성 (이성의 존재와 접촉기회)	.24***
이성교제의 의사전달능력	.14**	이성교제의 개인적 자원	.01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31***	이성소개에 대한 사회적 지원	-.06
이성관계의 편안도	.17***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	.10*		

주 : 각 상관계수의 사례수(N)는 403~405명이었음.

\*  $p<.05$ , \*\*  $p<.01$ , \*\*\*  $p<.001$ .

우 낮았으므로, 이 두 요인의 데이트관계에서의 역할은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트의 능력과 이성교제의 사교기술에 관련된 4개의 측정치들은 모두 데이트 상대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데이트 상대자수와 이성교제의 일반능력은 .18( $p < .001$ ), 이성교제의 사교기술과 방법 숙지도는 .34( $p < .001$ ), 이성교제의 의사전달 능력은 .14( $p < .01$ ),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는 .31( $p < .001$ ) 및 이성관계의 편안도는 .17( $p < .001$ )의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4개의 관련변인들의 측정치들 중에서 이성교제의 사교기술과 방법 숙지도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이 변인이 데이트관계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없는 아동들이 사교기술이 부족하다는 연구(Furman, 1984)와 고독한 사람이 낯선 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사교기술이 나쁘다(즉, 자기물두적이고, 비반응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효과적이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사교활동에 덜 참여된다)는 연구(Jones, Cavert, Snider 및 Bruce, 1985)와 수줍음(shyness)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전달에서 문제가 있으며(Kelly, 1982), 사교기술훈련이 의사전달의 부적절에서 생기는 수줍음의 경감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Kelly, 1984)와 일치되었다.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와 데이트 상대자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지만 유의했다( $r = .10, p < .05$ ).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성을 상대한 사람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그 결과로 만족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계속 이성 상대자를 찾거나 만난다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되었다.

데이트 상대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이었다( $r = -.35, p < .001$ ).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데이트 상대자수를 보인 것은 이른 연령에 데이트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데이트관계를 추구하거나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격변인들 중에서 이성에 대한 사회성( $r = .20, p < .001$ )과 그 지표로 가정된 이성 친구수( $r = .17, p < .001$ )

그리고 타인의 조망을 취함( $r = .12, p < .05$ )이 데이트 상대자 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존중( $r = .08$ )과 감정이입( $r = .07$ )은 각각 상관이 유의치 않았다. 타인의 조망을 취함이 또한 사회성의 한 측면이라고 본다면, 데이트 상대자수와 가장 큰 상관을 갖는 것이 이성에 대한 사회성을 나타낸다.

이성교제의 상황과 개인적 자원들에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이성교제의 상황 유리성(즉, 주위의 이성의 존재와 접촉기회)만이 데이트 상대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r = .24, p < .001$ ), 이성교제의 자원(즉, 시간적, 정신적 및 금전적 여유;  $r = .01$ ), 이성소개에 대한 주위 인물들의 지원( $r = .06$ )은 각각 상관이 유의치 않았다.

과거 데이트 상대자수와 가정된 관련변인들 간의 상대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트 상대자 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결정계수  $R^2$ 가 유의한 변인들만이 제시되었음)와 같다. 데이트 상대자 수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R^2 = .13, p < .001$ ), 연령( $R^2 = .10, p < .001$ ), 이성교제의 전달을 받은 정도( $R^2 = .05, p < .001$ ),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 숙지도( $R^2 = .02, p < .001$ ),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 $R^2 = .03, p < .001$ ), 신장( $R^2 = .01, p < .05$ ) 및 이성교제의 일반능력( $R^2 = .01, p < .05$ )의 순이었다. 따라서,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과 연령의 변인들이 데이트 상대자수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었다( $R^2$ 의 합계 = .23). 과거에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의 숙지도, 과거의

표 2. 데이트 상대자수와 관련된 변인들의 결정 계수( $R^2$ )

변 인 들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13***
연령	.10***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05***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의 숙지도	.02***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	.03***
신장	.01*
이성교제의 일반능력	.01*

\*  $p < .05$ , \*\*\*  $p < .001$

이성관계의 만족도 및 이성교제의 일반능력은 이성교제의 능력과 그 결과들에 관련된 변인들로서 데이트 상대자수의 두 번째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그 밖의 신체매력, 이성에 대한 매력도, 이성교제의 동기와 능력, 이성교제의 의사전달 능력, 이성관계의 편안도, 성격(사회성, 자기존중, 감정이입 및 타인의 조망을 취함), 이성교제의 상황유리성(즉, 주위의 이성의 존재와 접촉기회), 개인적인 자원(시간적, 정신적 및 금전적 여유) 및 주위 인물들의 지원은 데이트 상대자수에 영향주지 않았다.

### 데이트관계의 발전(개입, 만족 및 애정)과 관련된 변인들

지금까지 데이트관계의 발전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로 취급되어 왔던 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련된 변인들을 좀 더 광범하게 탐색하고, 이 변인들에 대한 다른 변인들 특히, 사회교환변인들의 상대적 관련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들 관계발전의 지표들과 가정된 관련변인들의 상관계수가 계산되었으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관계발전변인들, 즉 개입, 만족 및 애

표 3. 관계발전변인들(개입, 만족 및 애정)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의의도

변인들	개입	만족	애정	변인들	개입	만족	애정
관계발전변인들				의사소통			
개입	-	.82***	.72***	파트너와의 대화원활도	.48***	.54***	.47***
만족	.82***	-	.73***	파트너에 대한 자기개방	.60***	.63***	.69***
애정	.72***	.73***	-	파트너의 자기개방 유도능력	.36***	.35***	.40***
사회교환변인들				상호작용의 문제들과 관계유지노력			
보수	.59***	.69***	.58***	관계의 갈등	.17***	.09	.41***
부담	-.34***	-.43***	-.18**	양가감정	.04	-.08	.18
대안관계의 질	-.29***	-.25***	-.23***	파트너와의 문제정도	-.28***	-.41***	-.10
투자	.57***	.64***	.73***	관계유지의 노력	.55***	.59***	.67***
비교수준	.71***	.75***	.69***	조화성과 유사성			
형평성(이탈)	-.16**	-.22***	-.08	조화성	.74***	.73***	.66
과잉이익	-.24*	-.22*	-.11	유사성	.41***	.48***	.40***
과소이익	-.14	-.20*	.08	파트너의 신체매력	.38***	.40***	.42***
관계밀접성의 다른 지표들				사회적(규범적) 지지	.44***	.45***	.29***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54***	.59***	.71***	성격			
결혼가능성 지각	.67***	.62***	.61***	사회성			
신체접촉수준	.43***	.38***	.54***	일반적 사회성	.15*	.17*	.17*
성적친밀성	.44***	.46***	.60***	이성 사회성	.06	.02	.13*
관계의 중요성	.76***	.71***	.76***	동성 친구수	-.06	-.02	-.04
데이트활동				이성 친구수	.09	.07	.08
기간(월)	.20**	.17	.25***	자기존중	.25***	.32***	.34***
주당 일수	.31***	.34***	.28***	감정이입	.09	.10	.20***
주당 시간	.26***	.30***	.33***	타인의 조망을 취함	.01	.06	.03
욕구충족							
본인의 욕구충족 제공도	.52***	.57***	.47***				
상대방의 욕구충족 제공도	.48***	.51***	.45***				

주 : 각 상관계수의 사례수(N)는 202~203명의 범위이었으며, 형평성에서 과잉이익과 과소이익은 각각 116명과 111명이었다.

\* p<.05, \*\* p<.01, \*\*\* p<.001.

정 간의 상관들은 개입과 만족 간( $r=.82, p<.001$ ), 개입과 애정 간( $r=.72, p<.001$ ) 및 만족과 애정 간( $r=.73, p<.001$ )에 모두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따라서, 관계유지의 의도(즉, 개입), 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즉, 만족) 및 파트너에 대한 긍정적 감정(즉, 애정)의 개념들은 경험적으로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들, 따라서 동질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개입과 만족 간의 높은 상관관은 Rusbult(1980, 1983)의 투자이론을 지지했으며, Rusbult, Gregory, Whitney, Solvik 및 Lipkus(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사회교환변인들은 상호의존이론, 투자이론 및 형평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변인들로서, 형평성의 과소이익 지표와 개입( $r=.14$ )과 형평성의 3개의 지표들과 애정(각각  $-.08, -.11$  및  $.08$ ) 사이의 유의치 못한 상관관을 제외하고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그러나,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의 예언과는 반대로, 비교수준은 개입, 만족 및 애정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r=.69\sim.75$ ). 따라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사회교환변인들 간의 이론적 관계들은 비교수준의 변인을 제외하고서 전반적으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관계수들의 크기의 면에서 비교수준( $r=.69\sim.75$ ), 보수( $r=.58\sim.69$ ) 및 투자( $r=.57\sim.73$ )가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가장 높은 상관관을 보였으며, 부담을 보수보다 더 낮은 상관관을 보였고( $r=-.18\sim-.43$ ), 대안관계의 질은 전체적으로 부담보다 더 낮은 상관관을 보였다( $r=-.23\sim-.29$ ). 사회교환변인들 중에서 형평성의 일반적 지수(즉, 형평성 이탈)는 개입( $r=-.22$ )과 가장 낮은 상관관을 보였다.

관계발전의 다른 지표들은 개입, 만족, 애정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모두  $p<.001$ ). 전체적으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관계중요성( $r=.71\sim.76$ ), 결혼가능성의 지각( $r=.61\sim.67$ ),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r=.54\sim.71$ ), 성적 친밀성( $r=.44\sim.60$ ) 및 신체 접촉수준( $r=.38\sim.54$ )의 순으로 상관성이 컸다.

데이트활동의 지표들인 데이트관계의 기간(월;  $r=.17\sim.25$ ), 데이트의 주당 일수( $r=.28\sim.34$ ) 및 데이트의 주당 시간( $r=.26\sim.33$ )과 개입, 만족 및 애정 간의 상관들은 데이트의 기간과 만족( $r=.17$ )간의 유의치 못

한 상관관을 제외하고서, 모두 다소 낮기는 하지만 유의했다(각각  $p<.001$ ). 또한 데이트의 주당 일수와 데이트의 주당 시간은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거의 비슷한 상관관을 보였다.

욕구 충족은 본인이 파트너에게 제공한 욕구충족의 정도( $r=.47\sim.57$ )와 파트너가 본인에게 제공한 욕구충족의 정도( $r=.45\sim.51$ )가 모두 개입, 만족 및 애정과 다소 높은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모두  $p<.001$ ). 이러한 결과는 만족과 구체적 욕구들의 충족이 관련있다는 Drigotas와 Rusbult(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의사소통의 3개의 지표들인 파트너와의 대화원활도( $r=.47\sim.54$ ), 파트너에 대한 자기개방 정도( $r=.60\sim.69$ ) 및 파트너의 자기개방에 대한 본인의 유도능력( $r=.35\sim.40$ )과 개입, 만족 및 애정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모두  $p<.001$ ). 이러한 결과들은 대화의 긍정성이 결혼만족(예; Markman, 1979, 1981)과 데이트관계의 만족(예; Hendrick과 Hendrick, 1988)과 관련있다는 연구들과 일치된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는 자기개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기개방에 대한 본인의 유도능력이 또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관련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상호작용의 문제들의 지표인 관계의 갈등은 개입( $r=.17, p<.01$ )과 애정( $r=.41, p<.001$ )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지만, 만족( $r=.09$ )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갈등의 크기와 개입, 만족 및 애정 간에 부적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양가감정은 개입( $r=.04$ )과 만족( $r=-.08$ )과 유의치 못한 상관관을 보였으며, 애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r=.18, p<.01$ ). 이러한 결과들은 양가감정과 개입, 만족 및 애정과 부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트너와의 문제정도(즉, 문제가 많은 정도와 해결곤란한 정도)는 개입( $r=-.28, p<.001$ )과 만족( $r=-.41, p<.0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애정( $r=-.10$ )과는 상관성이 유의치 않았다. 따라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파트너와의 문제정도 간의 정적 관련에 대한 본 연구의 가정은 개입과 만족 부분에서는 지지받았지만, 애정 부분에서는 지지받지 못했다. 관계의 문제에 따른 관



계유지의 노력은 개입( $r=.55$ ), 만족( $r=.59$ ) 및 애정( $r=.67$ )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모두  $p<.001$ ).

본 연구에서 새로이 도입된 조화성의 측정치는 개입( $r=.74$ ), 만족( $r=.73$ ) 및 애정( $r=.66$ )과 모두 높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모두  $p<.001$ ).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관계의 조화성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과 아울러 본 연구의 가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유사성도 또한 개입( $r=.41$ ), 만족( $r=.48$ ) 및 애정( $r=.40$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모두  $p<.001$ ). 그러나, 유사성은 조화성보다 개입, 만족 및 애정과 상당히 낮은 상관을 보였다.

파트너의 신체매력은 개입( $r=.38$ ), 만족( $r=.40$ ) 및 애정( $r=.43$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매력이 파트너에 대한 호감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이전 연구들(예; 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과 일치된다. 사회적 지지(즉, 친구들과 가족들의 관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한 개입( $r=.44$ ), 만족( $r=.45$ ) 및 애정( $r=.29$ )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모두  $p<.001$ ).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결과들(예; Sprecher, 1988)과 일치하며,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한다.

성격변인들로서, 사회성의 지표들 중의 일반적 사회성은 개입( $r=.15$ ), 만족( $r=.17$ ) 및 애정( $r=.17$ )과 매우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모두  $p<.05$ ) 이성 사회성은 단지 애정( $r=.13$ ,  $p<.05$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 밖의 동성 친구수와 이성 친구수는 3개의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치 못했다. 또한 감정이입은 단

지 애정( $r=.20$ ,  $p<.01$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타인의 조망을 취함은 3개의 변인들과 상관이 유의치 못했다. 그러나, 자기존중은 개입( $r=.25$ ), 만족( $r=.32$ ) 및 애정( $r=.34$ )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Lin과 Rusbult(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했다.

관계발전의 지표들인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가정된 관련변인들 간의 상대적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결정계수  $R^2$ 이 유의한 변인들만이 제시되었음)와 같다.

개입과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은 만족( $R^2=.79$ ,  $p<.001$ )이 압도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애정( $R^2=.05$ ,  $p<.001$ ), 과잉이익( $R^2=.02$ ), 자기존중( $R^2=.01$ ,  $p<.05$ ), 관계의 갈등( $R^2=.01$ ,  $P<.05$ ) 및 파트너의 신체매력( $R^2=.01$ ,  $p<.01$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입에 관한 Rusbult(1980a, 1980b)의 투자이론에 대해서 부분적 지지를 제공한다. 즉, 개입의 요인으로서 만족의 변인은 지지받았으나, 투자와 대안관계의 질의 변인들은 지지받지 못했다.

만족과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은 조화성( $R^2=.69$ ,  $p<.001$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관계의 중요성( $R^2=.10$ ,  $p<.001$ ), 파트너의 신체매력( $R^2=.14$ ,  $p<.001$ ), 규범적 지지( $R^2=.02$ ,  $p<.05$ ) 및 비교수준( $R^2=.02$ ,  $p<.05$ )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 의존이론과 투자이론에서 만족의 결정요인으로서 제

표 4. 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련된 변인들의 결정계수( $R^2$ )

개 입		만 족		애 정	
만족	.79***	조화성	.72***	개입	.63***
애정	.05***	관계의 중요성	.10***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09***
과잉이익	.02*	파트너의 신체매력	.06***	비교수준	.05***
자기존중	.01*	규범적 지지	.02*	투자	.02***
관계의 갈등	.01*	비교수준	.02*	자기개방	.02***
파트너의 신체매력	.01*			양가감정	.01**
				파트너의 신체매력	.01**
				관계의 중요성	.01*

\*  $p<.05$ , \*\*  $p<.01$ , \*\*\*  $p<.001$

시된 보수와 부담의 관련성이나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들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한 호화성 측정치가 만족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가정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애정과 관련성을 가진 변인들은 관계의 개입( $R^2=.63$ ,  $p<.001$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R^2=.09$ ,  $p<.001$ ), 비교수준( $R^2=.05$ ,  $p<.001$ ), 투자와 자기개방(각각  $R^2=.02$ ,  $p<.001$ ), 양가감정과 파트너의 신체매력(각각  $R^2=.01$ ,  $p<.01$ ) 및 관계의 중요성( $R^2=.01$ ,  $p<.05$ )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열정이나 친밀성보다 관계의 중요성과 투자의 요인들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 논 의

### 데이트관계의 형성(데이트 상대자수)에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에서 데이트 상대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r=-.35$ ),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 숙지도( $r=.34$ ), 과거에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r=.31$ ), 이성교제의 상황 유리성(주위의 이성의 존재와 접촉기회;  $r=.24$ ) 및 이성 사회성( $r=.20$ )이었으며, 이성사교술과 관련된 변인들, 즉 이성관계의 일반능력( $r=.18$ ), 이성관계의 편안도( $r=.17$ ), 이성 친구수( $r=.17$ ) 및 이성교제의 의사전달능력( $r=.14$ )이 데이트 상대자수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체매력, 이성에 대한 매력도 및 신장(각각  $r=.15$ )이 데이트 상대자수와 상관있었다. 또한 연령( $r=.12$ ), 타인의 조망을 취함( $r=.12$ ), 데이트에 대한 동기와 태도(각각  $r=.11$ ),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 $r=.11$ )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경제수준과 몇 개의 성격변인들(일반적 사회성, 자기존중 및 감정이입)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이 데이트 상대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일찍이 데이트관계를

를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은 이성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관계의 시작이 청년기에 시작되고 따라서 사람들의 데이트에 관한 연구가 청년기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에 관한 자료는 약 50%의 응답자들이 18세 이전에 데이트관계를 가졌음을 나타냈다(즉, 13세-2%, 14세-3%, 15세-5%, 16세와 17세-각각 11%, 18세-18%, 19세-24%, 20세-16%, 21세-6%, 22세-2% 및 23세에서 25세까지-1%). 이른 연령에서 데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예; 성격, 사교술, 상황 등)에 관한 연구들이 앞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상대자수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가장 많은 변인들은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능력에 관련된 것들[즉,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 숙지도, 이성관계의 일반능력, 이성교제의 의사전달 능력, 이성관계의 편안도, 이성사회성(성격) 및 이성친구수]이었다. 또한 타인의 조망을 취함(성격)의 변인도 이성관계의 사교기술이나 능력에 관련있는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관계의 형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능력의 관련성들은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능력에 대한 앞으로의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대인매력에 대해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신체매력(예; Walster, Abrahams 및 Rottman, 1966)도 또한 데이트 상대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변인은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능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신체매력과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능력이 데이트관계의 진전과정에서 각각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신체매력은 데이트관계의 시초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능력이 그 이후에 더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트 상대자수와 연령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데이트관계의 형성이 개인의 발달과정으로 취급될 필요성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표본에서 데이트 상대자수와 연령 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대학생들은 비교적 연령적으로 동질적이므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의 71%가 19세에서 22세까지의 범위이었음), 더 폭넓은 연령범위 즉, 대학생 이외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면, 데이트 상대자수와 연령 간의 상관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데이트에 대한 동기와 태도는 데이트 상대자수와 유의하기는 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데이트에 대한 개인의 의도나 욕망이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미약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 상대자수와 이성교제의 상황유리성(즉, 주의의 이성의 존재와 접촉기회)이 데이트에 대한 동기와 태도보다 더 큰 상관계수를 보였으므로, 데이트에 대한 동기와 태도와 아울러 데이트의 상황 특징을 고려한다면, 데이트관계의 형성을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이성교제의 만족도가 데이트관계의 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대인매력에 관한 강화 이론들(Byrne과 Clore, 1970; Lott와 Lott, 1960, 1974)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첫 데이트관계의 형성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하나의 강화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강화가 차후의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대해 갖는 영향(예컨대, 첫사랑에 실패한 자들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트 상대자수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관들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데이트 상대자수의 예측 변인들로서, 첫 데이트 당시의 연령( $R^2=.13$ )과 연령( $R^2=.10$ )의 변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과거에 이성교제의 의사전달을 받은 정도( $R^2=.05$ ) 및 이성관계의 사교기술과 방법의 숙지도( $R^2=.02$ )와 이와 관련된 이성교제의 일반능력( $R^2=.01$ )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그 밖에 과거 이성교제의 만족도( $R^2=.03$ )와 신장( $R^2=.01$ )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변인의 결정계수( $R^2$ )의 총계가 .35이었는데, 이는 좀 더 관련성있는 변인들이 앞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데이트관계 형성의 지표로 삼은 과거 데이트 상대자수는 데이트관계의 형성에 관한 매우 거친 지표인 것 같다. 데이트관계의 형성은 1인이나 2인과 같이 매우 소수의 인물들과의

깊은 관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아마 데이트관계 형성을 대표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트관계 형성의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성된 여러 관계들의 여러 특징들, 즉, 관계의 기간, 활동, 친밀한 정도, 유지-파탄, 개입, 만족, 애정, 갈등 등을 고려하고 이것들의 과정을 또한 고려하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데이트관계의 발전(개입, 만족 및 애정)에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에서 관계발전의 지표들로 삼은 개입, 만족 및 애정은 높은 상호 상관들을 보였다( $r=.72\sim.82$ ). 또한 이것들에 관련된 것을 가정된 여러 변인들은 대부분이 유사한 상관계수들을 보였다. 따라서, 개입(관계유지의 의도), 만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애정(파트너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들이다.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관계의 개인적 중요성이나 중심성(centrality;  $r=.71\sim.76$ ), 조화성( $r=.66\sim.74$ ) 및 비교수준( $r=.69\sim.75$ )이었으며, 그 다음이 결혼가능성의 지각( $r=.61\sim.67$ ), 파트너에 대한 자기개방( $r=.60\sim.69$ ), 보수( $r=.58\sim.69$ ), 투자( $r=.57\sim.73$ ),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r=.54\sim.71$ ), 본인의 욕구충족 제공도( $r=.47\sim.57$ ) 및 관계유지노력( $r=.55\sim.67$ )이었다.  $r=.40$ 이상의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파트너와의 대화원활도, 성적 친밀성, 신체접촉 수준, 사회적 지지 및 유사성이었으며,  $r=.30$ 대의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파트너의 신체매력, 파트너의 자기개방 유도능력, 부담(부적 상관임), 데이트활동(주당 일수)이었다.  $r=.20$ 대의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자기존중, 대인관계의 질(부적 상관임), 파트너와의 문제정도, 데이트 기간이었으며,  $r=.10$ 대의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갈등, 형평성(이탈) 및 일반적 사회성이었다. 그리고 성격변인들 즉, 감정이입, 타인의 조망을 취함 및 사회성의 지표로 삼은 동성 친구수와 이성 친구수는 애정과 감정이입 간의 상관( $r=.20$ )을 제외하고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상관이 유의치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입, 만족 및 애

정에 중요한 변인들 중에서 관계의 중요성, 조화성, 비교수준, 결혼가능성의 지각, 파트너에 대한 자기개방 등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이 두어졌던 사회교환변인들은 형평성(이탈)과 애정 간의 무의한 상관( $r=-.08$ )을 제외하고서, 모두 개입, 만족 및 애정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장 상관이 높았던 변인들은 비교수준( $r=.57-.73$ ), 보수( $r=.58-.69$ ) 및 투자( $r=.57-.73$ )이었으며, 부담( $r=-.18-.43$ ), 대안관계의 질( $r=-.23-.29$ ) 및 형평성 이탈( $r=.08-.22$ )은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의외의 결과는 비교수준과 개입과 만족 간의 정적 상관이었는데, 이것은 상호의존이론(Kelley와 Thibaut, 1978)과 이 이론을 발전시킨 투자이론(Rusbult, 1980, 1983)의 예언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Kelley와 Thibaut(1958)의 상호의존이론에서 비교수준(CL)은 “참가자들이 관계의 매력성이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p. 8)이라고 규정했으며, 이 이론을 공식화시킨 Rusbult(1983)는 비교수준이 만족과 역관계를 가진다고 시사했다[즉, 만족=(보수-부담)-비교수준]. 따라서, 이들 이론에 의하면, 비교수준이나 일반화된 기대들(generalized expectation)이 높을수록 만족은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계에 대한 기대나 이상적 기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간주된 “당신은 이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까?”, “당신은 이 관계에 대해 얼마나 높은 이상적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및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이 관계가 당신에게 좋은 결과들을 얼마나 많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의 질문들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일반적 관계들에 대한 기대보다 관계 자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 같으며, 앞으로 일반적 관계들과 특수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구분짓는 측정치들을 비교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에서 취급한 비교수준의 변인은 본 연구에서 적절히 취급된 것 같지는 않으며, 비교수준에 관한 이론적 예언들에 대한 지지 여부는 보류되어야만 될 것 같다.

투자이론에 관련된 투자와 개입( $r=.57$ ), 만족( $r=.64$ )

및 애정( $r=.73$ )간의 상관들은 상대적으로 꽤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투자와 개입 간의 유의한 상관은 투자이론을 지지했다. 그러나 투자는 개입보다 만족과 애정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개입에 대해서만 투자가 관련있다는 투자이론의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들에서 개입의 결정요인들 속에 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정의 결정요인으로서 투자가 유의했다는 사실은 투자요인이 개입의 중요한 결정요인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상호의존이론과 아울러 투자이론에서 증시한 대안관계의 질은 개입( $r=-.29$ ), 만족( $r=-.25$ ) 및 애정( $r=-.23$ )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으로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들에서, 대안관계의 질은 개입과 아울러 만족의 변량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입의 결정요인으로서 대안관계의 질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시킨다.

전반적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들은 개입의 결정요인으로서 투자와 대안관계의 질의 변인들이 유의치 못했고, 만족의 결정요인으로서 보수와 부담의 변인들이 유의치 못했으므로,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에 대한 차후의 더 많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입, 만족 및 애정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 조화성(compatibility)은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입( $r=.74$ ), 만족( $r=.73$ ) 및 애정( $r=.66$ )과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데이트 관계는 자신과 잘 어울리는 상대를 찾는 과정이며, 따라서 조화성은 보수, 부담, 대안관계의 질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간주될 수 있으며, 상호의존이론과 투자이론에서는 이 변인을 다소 경시한 것 같다. 한편,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들은 조화성이 주로 만족에 관련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끔 해 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만족( $R^2=.79$ )이 개입

의 주요 결정요인이었고, 조화성( $R^2=.72$ )이 만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조화성→만족→개입의 방향의 관계가 시사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의 타당성이 검증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애정의 결정요인들로서 개입( $R^2=.63$ )이 가장 큰 변량을 차지했고, 관계의 전반적 친밀성( $R^2=.09$ )이 두 번째로 큰 변량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Sternberg (1986, 1987)의 애정의 3요소설 중의 두 요소를 지지해 준다.

또한 흥미있는 결과는 갈등과 개입( $r=.17$ ), 만족( $r=.09$ ) 및 애정( $r=.41$ ) 간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관계의 갈등은 이들 변인과 부적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 본 연구에서 연구된 데이트관계가 대부분 관계의 초기에 있고, 따라서 관계의 진행의 일부로서 필연적으로 말다툼, 화나는 것 및 부정적 감정들을 포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영향은 관계의 전기보다 후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Lloyd와 Cate, 198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취급된 개입, 만족 및 애정의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의 의문이 남아있다. 본 연구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들은 사후적으로 그 해답을 일부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 따라 조작적으로 구분짓는다면, 개입은 주로 만족으로 이루어지고, 만족은 주로 조화성으로 이루어지며, 애정은 주로 개입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부족하게 이루어져 왔던 개입, 만족 및 애정의 개념들에 대한 차후의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 같다.

## 참 고 문 헌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Anderson, C. A., & Hunsaker, P. L. (1985). Why there's romancing at the office and why it's everybody's problem. *Personnel*, February, 57-63.

Antill, J. K. (1983). Sex role complementarity versus similarity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45-155.

Archer, R. L., Berg, J. H., & Runge, T. E. (1980). Active and passive observe's attraction to a self-disclosing oth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30-145.

Aron, A., Dutton, D. G., Aron, E. N., & Iverson, A. (1989). Experience of falling in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243-257.

Aronson, E., & Worchel, P. (1966). Similarity vs. liking as determinants of interpersonal attractiveness. *Psychological Science*, 5, 157-158.

Backman, C. W., & Secord, P. F. (1959). The effect of perceived liking on interpersonal attraction. *Human Relations*, 12, 379-384.

Badchuck, N. (1965). Primary friends and kin: A study of the association of middle-class couples. *Social Forces*, 43, 483-493.

Berg, J. H., & McQuinn, R. D.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42-952.

Berscheid, E., Dion, K., Walster, E., & Walster, G. W. (1971).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ating choice: A test of the matching hypothesi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173-189.

Berscheid, E., Snyder, M., & Omotto, A. M. (1989). Issues in studying close relationships: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loseness. In C. Hendrick (Ed.), *Close relationships*(pp.63-91). Newbury

- Park, CA: Sage Publications.
- Berscheid, E., & Walster, E. H. (1974). A little bit about love. In T. L. Huston (Ed.) *Foundation of interpersonal attraction* pp.355-381. New York: Academic Press.
- Berscheid, E., & Walster, E. H.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 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Bloom, B., Asher, S. J., & White, S. W. (1978). Marital disruption as a stressor: A review and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5, 867-894.
- Braiker, H. B., & Kelley, H. H. (1979).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R. L. Burges & T. L. Huston (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p.135-169). New York: Academic Press.
- Brockner, J., & Swap, W. C. (1976).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and attitudinal similarity on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31-540.
- Brooks-Gunn, J., & Furstenberg, F. F. (1989). Adolescent sexu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249-257.
-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New York: Lippincott.
- Buss, A. H. (1995). *Personality: Temperament, social behavior, and the self*. Boston: Allyn & Bacon.
- Byrne, D., & Clore, G. L. (1970). A reinforcement model of evaluative processes. *Personality : An International Journal*, 1, 103-128.
- Byrne, D., & Nelson, D. (1965). Attraction as a linear function of proportion of positive reinforc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659-66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sh, T. F., & Kilcullen, R. N. (1985). The eye of the beholder: Susceptibility to sexism and beautyism in the evaluation of managerial applica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591-605.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ate, R. M., Lloyd, S. A., & Long E. (1988). The role of rewards and fairness in developing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443-452.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ook, M. (1977). The social skill model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In S. W. Duck (Ed.) *Theory and practice in interpersonal attrac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ritelli, J. W., & Waid, D. R. (1980). Physical attractiveness, romantic love, and equity restoration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 624-629.
- Crowne, D. P.,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New York: Wiley.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ion, K. K., & Dion, K. L. (1985). Personality, gender, and the phenomenology of romantic love. In P. Shaver (Ed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 *Self, situations, and social behavior*(pp.209-239.) Beverly Hills: Sage.
- Drigotas, S. M., & Rusbult, C. E. (1992).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A dependence model of

- break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2-87.
- Fairhurst, G. T., & Snively, B. K. (1983). Majority and token minority group relationships: Power acquisition and communic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292-320.
- Feingold, A. (1988). Matching for attractiveness in romantic partners and same-sex friends: A meta-analysis and theoretical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4, 226-235.
- Felmlee, D., Sprecher, S., & Bassin, E. (1990). The dissolution of intimate relationships: A hazard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 13-30.
-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 (1950).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human factors in hous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lkes, V. S. (1982). Forming relationships and the match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631-636.
- Freedman, J. (1978). *Happy people: What happiness is who has it and wh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Furman, W. (1984). Enhancing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In S. W. Duck (Ed.) *Personal relationships 5: Repairing 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 Gifford, R., & Gallager, T. M. B. (1985). Sociability: Personality, social context, and physical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015-1023.
- Gillis, J. S., & Avis, W. E. (1980). The male taller norm in mate sele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 396-401.
- Green, S. K., Buchanan, D. R., & Heuer, S. K. (1984). Winners, losers, and choosers: A field investigation of dating init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502-511.
- Gutek, B. A. (1985). *Sex and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 Hatfield, E., & Traupman, J. (1981). Intimate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rom equity theory. In S. Duck & R. Gilm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1: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pp. 165-178). London: Academic Press.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8). Lovers wear rose colored glass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161-183.
- Hendrick, S. S. (1981).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150-1159.
- Hendrick, S. S. (1988). A generic measur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3-98.
- Hill, C. T., Rubin, Z., & Peplau, L. A. (1976). Breakups before marriage: The end of 103 affairs.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47-168.
- Huston, T. L. (1973). Ambiguity of acceptance, social desirability, and dating cho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32-42.
- Jessor, R., Costa, F., Jessor, L., & Donovan, J. E. (1983). Time of first intercourse: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08-626.
- Johnson, M. P., & Milardo, R. M. (1984). Network interference in pair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recasting of Slaton's theory of social re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93-899.
- Jones, S. C., & Panitch, D. (1971).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356-366.
- Jones, W. H., Cavert, C. W., Snider, R. L., & Bruce, T. (1985). Relational stress: An analysis of

- situations and events associated with loneliness. In S. W. Duck & D. Per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Sage.
- Kanter, R. M. (1977). Some effects of proportions in group life: Skewed sex ratios and response to token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2, 965-990.
- Kelley, H. H., & Thibaut, J.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Wiley.
- Kelley, S. Jr., & Mirer, T. W. (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72-591.
- Kelly, L. (1984). Social skills training as a mode of treatment for social communication problems. In J. Daly & J. C. McCroskey (Eds.) *Avoiding communication: Shyness, reticence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Beverly Hills, CA: Sage.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s correlation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67-178.
- Kerckhoff, A. C., & Davis, K. E. (1962). Value consensus and need complementarity in mate sele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 295-303.
- Lewis, R. A. (1973). Social reaction and the formation of dyads: An interactionist approach to mate selection. *Sociometry* 36, 409-418.
- Lin, Y. H., & Rusbult, C. E. (1995). Commitment to dating relationships and cross-sex friendships in America and Chin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1), 7-26.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79-194.
- Lloyd, S. A., Cate, R. M., & Henton, J. M. (1984). Predicting premarital relationship stability: A methodological refin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71-76.
- Lorr, M., & Wunderlich, R. A. (1986). Two objective measures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8-23.
- Lott, A. J., & Lott, B. E. (1974). The role of reward in the formulation of positive interpersonal attitudes. In T. L. Huston (Ed.), *Foundation of interpersonal attraction* (pp.171-189). New York: Academic Press.
- Lott, B. E., & Lott, A. J. (1960). The formation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group membe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408-412.
- Lund, M. (1985).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commitment scales for predicting continu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23.
- Lynn, M., & Shurgot, B. A. (1984). Responses to lonely hearts advertisements: Effects of reported physical attractiveness, physique, and colo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349-357.
- Markman, H. J. (1979). Application of a behavioral model of marriage in predic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couples planning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743-749.
- Markman, H. J. (1981).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A 5-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762.
- McAdams, D. P., & Losoff, M. (1984). Friendship motivation in fourth and sixth graders: A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1-27.
- Michaels, J. W., Edwards, J. N., & Acock, A. C. (1984).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as



- a function of inequality, inequity and outcom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347-357.
- Millar, M. G., & Tesser, A. (1986). Thought-induced attitude change: The effects of schema structure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59-269.
- Miller, B. C., & Moore, K. A. (1990).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parenting: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25-1044.
- Moreland, R. L., & Zajonc, R. B. (1982). Exposure effects in person perception: Familiarity, similarity, and att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18, 395-415.
- Murstein, B. I. (197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arital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8-12.
- Murstein, B. I. (1976). *Who will marry whom?* New York: Springer.
- Nahemow, L., & Lawton, M. P. (1975). Similarity and propinquity in friendships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2), 205-213.
- Newcomb, M. D., Huba, G. H., & Bentler, P. M. (1986). Determinants of sexual and dat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428-438.
- Newcomb, T. M. (1961). *The acquaintance proces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Norman, R. (1975).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attitudes, conformity,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83-91.
- Parker, S. R. (1964). Type of work, friendship patterns and leisure. *Human Relations*, 17, 215-219.
- Parks, M. R., & Adelman, M. B. (1983).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An expansion of uncertainty reduction theor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55-79.
- Parks, M. R., Stan, C. M., & Eggert, L. L. (1983). Romantic involvement and social network involve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16-131.
- Pepitone, A., & Wilpinski, C. (1960). Some consequence of experimental rejec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 359-364.
- Price, R. A., & Vandenberg, S. S. (1979). Matching for physical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 398-400.
- Reis, H. T., Nezelek, J., & Wheeler, L. (1980). Physical attractivenes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04-61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 609).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172-186.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117.
- Rusbult, C. E., Gregory, J. V., Whitney, A., Slovik, L. F., & Lipkus, I. (1991). Accommoda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Theory and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3-78.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ceiv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chellenberg, J. A. (1960). Homogamy in personal

- values and the field of eligibles'. *Social Forces*, 39, 157-162.
- Segal, M. W. (1974). Alphabet and attraction: An unobtrusive measure of the effect of propinquity in a field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654-657.
- Shanteau, J., & Nagy, G. (1976). Decisions made about other people: A human judgment analysis of dating choice. In J. Carroll & J. Payne (Eds.), *Cognition and Social Judgment*(pp. 221-242). Hillsdale, NJ: Erlbaum.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hephard, J. A., & Strathman, A. J. (1989). Attractiveness and height: The role of stature in dating preference, frequency of dating, and perceptions of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617-627
- Silverman, I. (1971). Physical attractiveness and courtship. *Sexual Behavior*, 3, 22-25.
- Simpson, J. A. (1987). The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Factors involved in relationship stability and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83-692.
- Skolnick, A. (1981). Married lives: Longitudinal perspectives on marriage. In D. Eichorn, J. Clausen, N. Haan, M. Honzik & P. Mussec (Eds.), *Present and past in middle life*(pp.70-298.). New York: Academic Press.
- Sonenstein, F. L., Peck, J. H., & Ku, L. C. (1989). Sexual activity, condom use, and AIDS awareness among adolescent mal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1, 152-158.
- Sprecher, S. (1988). Investment model equity,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relationships commitmen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318-328.
- Stanley, S. M., & Markman, H. (1992). Assessing commitment in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95-608.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ernberg, R. J. (1987). Liking versus loving: A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ories. *Psychological Bulletin*, 102, 331-345.
- Stets, J. E. (1993). Control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73-685.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01-516.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Walster, E., Aronson, V., Abrahams, D., & Rottmann L. (1966).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08-516.
- White, G. L. (1980). Inducing jealousy: A power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6, 222-227.
- Winch, R. F. (1955a). The theory of complementary needs in mate selection: A test of one kind of complementar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52-56.
- Winch, R. F. (1955b). The theory of complementary needs in mate selection: Final results on the test of the general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 552-555.
- Winch, R. F., Ktsanes, T., & Ktsanes, V. (1954). The

theory of complementary needs in mate selection: An analytic and descriptiv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241-249.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Supplement*, 9, 1-27.

# Variables Related to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Dating Relationships

Dae-shik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questionnaire of dating relationships was administered to 612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including 237 students who have present dating relationships). The variables correlated with number of past date partners were age of first date( $r=.35$ ), social skills and knowledge of techniques related to heterosexual relationships( $r=.34$ ), favorableness of heterosexual situations( $r=.24$ ), etc., and level of socio-economic status, general sociability, self-esteem, emotional empathy and personal resources hav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to number of past date partners. The determinant variables( $R^2$ ) of number of past date partners were age of first date(.13), age(.10), degree of received date-propose(.05), social skills and knowledge of techniques related to heterosexual relationships(.02), satisfaction of past heterosexual relationships(.03), height(.01) and general ability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01). The variables highly correlated with commitment, satisfaction and love were centrality(or importance)of dating relationships( $r=.71 \sim .76$ ), compatibility( $r=.66 \sim .74$ ), and social exchange variables and many other variables als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bove variables. The determinant variables( $R^2$ ) of commitment were satisfaction(.79), love(.05), over-benefit(.02) and physical attraction of partners(.01). The determinant variables( $R^2$ ) of satisfaction were compatibility(.72), centrality(or importance) of dating relationships(.10), physical attractiveness of partners(.06), normative support(.02) and comparison level(.02). The determinant variables( $R^2$ ) of love were commitment(.63), general intimacy of relationship(.09), comparison level(.05) and self-disclosure(.02). The concepts of commitment, satisfaction and love and problems related to theory of interdependence and investment model were discussed.